

전남대·조선대의대 15일부터 수업재개

집단 유급 사태 막고자 한 달 이상 연기했지만 재개 불가피 '의학교육 인증' 마지노선...더 미루면 국가고시 응시도 차질

의대생 무더기 휴학 신청으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광주 소재 의과대학 2곳이 오는 15일부터 모두 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집단 유급 막고자 이미 한 달가량 학사 일정을 미뤘지만, 더 이상의 파행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수회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개강, 공석 학사 일정을 시작키로 의결했다.

앞서 전남대의대는 재학생 732명 중 78.5%에 해당하는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의대는 무더기 휴학 신청으로 인한 재학생 불이익을 감안, 당초 개강일인 지난 2월 19일에서 여러 차례 학사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조선대의대 역시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학사 일정을 정상화키로 했다. 조선대 역시 전체 의대생 725명 중 80% 남짓인 600여 명이 이미 휴학 의사

를 밝힌 바 있어, 한 달 넘게 강의·실습 일정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이 집단 유급 만이라도 막아보고자 연기해온 학사 일정을 재개한 것은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계획된 학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결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의 수업 일수가 연간 최소 30주 이상인데 의대는 임상 실습 등을 포함해 더 길다는 점도 고려하면 더는 개강을 미루기 어려운 사정이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무단 결석 등으로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 휴학에 나선 두 대

학 의대생들이 예고된 개강일인 오는 15일까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량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량 유급 사태의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이다. 대학 입장에서도 학사 일정을 또 다시 미룬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강이 더 늦어지면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수업 일수는 방학과 주말을 최대한 이용해 채우고, 온라인 강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중 40%에 해당하는 16개교는 이미 수업을 재개했다.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

이달 15~19일 사이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는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해 16개교다. 다음주 중이면 전체 40개 의대 중 32개교(80%)가 학사 일정을 재개하는 것이다.

김희면기자



여수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무안경찰-무안군 운수업체 협약 체결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9일 오전 10시 치매노인 및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무안경찰서-무안군 운수업체(무안교통, 모범운전자협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담양경찰서 금성파출소, 산벚꽃 축제기간 참여지안 실천

담양경찰서(서장 권현오) 금성파출소는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기간에 참여지안의 일환으로 경찰관 등 총 60여명이 안전한 지역축제가 되도록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를 실시 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소방,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 작업장 안전조치 안내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8일 지난 3월 중 곡성군 관내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용접 작업장 불티 비산 방지 조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신안군-코레일 광주본부 업무 협약 체결

신안군은 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임석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강진소방,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 생활안전분야 '3연패 달성'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5일 (주)전남도립대 강홍캠퍼스에서 실시한 제3회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 생활안전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최악의 시나리오...집단유급되면 '예비 의대생'까지 피해 눈덩이

의대 16곳 유급 위기에 수업 열었지만 출석 저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해온 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돌입했지만 위기는 여전히 상황이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 사태가 길어지면 향후 5~6년 이상 학부 의학교육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9일 교육부가 전남인 8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현재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전체 40개교 중 16개교(40%)다.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한 배경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이수 기준 등 계획된 학사 일정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간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휴강과 개강 연기로 대응해 왔지만, 더 일정을 미루면 대학 탓에 유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을 재개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낙제(F)를 받고 학적에 따라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는 여전히 상태다.

전북대, 영남대 등 일부 대면 강의를 재개한 의대도 있으나 의대생들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영남대 의대에서도 본과 1~4학년 299명 중 2%에 해당하는 단 6명만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학기 중간고사 시기가 되면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대학들은 대개 출석일수 미달에 더해 시험까지 치르지 않으면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북대는 1학기 중간고사를 다음 달 3~7일에 잡았다. 일부 대학들 사이에선 4월 중하순이 데드라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경우 의대생들이 등록금이라도 돌려 받으면 휴학을 승인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변동 가능성도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대학들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학이든 유급이든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보면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과 1학년 전원 유급을 가정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정원에 맞춰 입학할 5058명과 올해 3058명까지 8000여명이 수업을 동시에 듣게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악의 경우 아직 의대에 입학하지 않은 예비 의대생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예과 1학년은 신입생이라 휴학이 어려워 보다 많은 대학(24개교)에서 전공 수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과장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집단 유급의 파장은 간단치 않다는 점은 정부와 의교계 간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온건한 의대 교

수 사이에서도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려대 의대 교수인 조윤정 전 전국외과대학교수회연합회(전외교협) 홍보위원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고려대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상황을 전하며 집단 유급 시 교육이 불가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현재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수업을 듣고 있는 만큼, 수업을 거부한 예과 2학년들의 대규모 유급으로 내년도부터 최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은 본과 4학년인 2029년까지 5년 동안 이어진다.

여기에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2025학년도엔 증원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된다. 대학가와 의교계에선 교육 여건 확충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말한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다.

조 교수는 "두 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5년을 같이 다닌다면 교육할 수 없다. 학부모듈부터 항의할 것"이라며 "요즘은 인턴 숙소에 따뜻한 물 나오지 않는다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해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강의실과 실습실, 소규모 강의실 등 시설은 여러 학년이 공유하고 있다"며 "시설 자체도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과국을 면하려면 정부와 전공의가 속히 마주앉아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슬비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4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4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4대호 저수율 82.8% 올봄 농업용수 공급 안정적 전망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4대호 저수율이 평년치를 웃돌아 올봄 농업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사가 관리 중인 광주·전남지역 4대호 평균 저수율은 82.8%로 안정적인 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올봄 용수공급은 내달 10일 몽탄양수장을 시작으로 장성호-13일, 담양호-14일, 광주호-14일, 나주호-16일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4대호는 광주시·나주시, 장성군·담양군·함평군·영암군 일대 2만9593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농업기반 시설로 의존도가 높다.

전남본부는 통수 일정에 맞춰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과 관정·양수장 공급 시설 점검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남본부는 이날 오전 본부 대회의실에서 영농기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광역 물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 현장 수자원 관리 담당자들은 4대호를 비롯한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조성된 수리시설 용수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 가뭄이나 지역별 편차가 큰 폭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 간 물 갈등 해소와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을 모색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